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이사, “연준, 연준 향후에도 계속 금리 인상해야”
- Bloomberg: 골드만삭스, “미 인플레이션 내년에 크게 떨어진다”
- NYT 오피니언: 미 경제가 나쁜데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이유?

[미국 금융]

- WSJ: 투자자들, 빅 테크 주가 회복 계속될지 궁금

[글로벌 경제]

- Market Watch: 모건 스탠리, 내년엔 글로벌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약화, 금리 인상 중단 전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소매업계,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소비자 동향에 주목
- WSJ: 미 20대 초 ‘Z세대 근로자’ 왜 사라졌나 : 노동 시장 미스터리
- Bloomberg: 애플 스토어, 소매업장으로 전략한 이유
- CNBC: Ford vs. GM: 같은 산업 두 라이벌 회사의 다른 전략
- NYT: EV, 자동차 시장 주류에 진입 시작했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 Official Warns Inflation Fight Has ‘Ways to Go’

연준 이사, “연준, 연준 향후에도 계속 금리 인상해야”

- 어제 일요일 연준 이사는 지난주 10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였어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준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핵심 물가지수의 10월 수치는 월별 기준으로 9월에 비해 0.3%로 아주 소폭 상승, 연율로는 9월 6.6%보다 6.3%로 둔화됐다.
- 이와 관련 연준 관리 Christopher Waller는 어제 일요일 “10월 인플레이션 발표 수치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검토를 시도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보았다면 과도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며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을 검토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둔화 현상에 대한 보다 충분한 증거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WSJ 기사

Bloomberg: Goldman Sachs Sees Significant Decline in US Inflation Next Year

골드만삭스, “미 인플레 내년에 크게 떨어진다”

- 골드만삭스는 미국 인플레가 내년에 매우 높게 약화될(a significant easing of US inflation) 근거로 3 가지를 제시했다.
- 즉, 공급망 문제가 둔화되고, 주택 관련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그리고 임금 성장세도 둔화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핵심 개인소비지출 (PCE) 지수가 최근 5.1%에서 내년 12월까지 2.9%로 떨어질 것이라고 리서치 노트에서 밝혔다. 물론 원자재 가격도 둔화되고 강한 달러가 인플레에 역시 압박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NYT 오피니언: Two Cheers for the Biden Economy by Paul Krugman 미 경제가 나쁜데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이유?

- 지난해 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가구들은 미 경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로컬 경제에 대해서는 이 두개의 입장차의 중간 정도로 보였다.
- 나의 판단으로 볼때는 올해도 가구들은 비슷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지출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 즉, 미국인들은 미디어 설문 조사에서는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금융 상황은 괜찮다는 입장에서 찍은 것이다.
- 이는 NBC 뉴스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다. 인플레 통제 위해 어떤 당을 더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물론 공화당을 선호하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답변 비율은 52%대 44%로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때 대통령직의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은 책임을 지라는 투표를 하는 상황인데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두 정당간의 표차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같다. Paul Krugman은 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진보적인 경제학자.

NYT 기사

[미국 금융]

WSJ: Investors Question Whether Big Tech's Rebound Can Last 투자자들, 빅 테크 주가 회복 계속될지 궁금

- 미 주식이 올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지난주 기술주가 지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회복되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긴축 금리를 후퇴시킬 경우 IT주식들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 그러나 헤지펀드사 Stouff Capital의 설립자인 Julien Stouff는 “최근 상황은 전형적인 베어 마켓에서의 랠리라며, 이같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소매 판매 수치와 기준 주택 판매 실적을 살펴볼 예정이다.
- 한편 여전히 IT 주가는 올해 전체 기간을 보았을 때 큰 손실을 입은 상태다. 올해 S&P 500 마이너스 15%, 나스닥은 올해 28% 추락한 상황이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Market Watch: Weaker Global Growth, Lower Inflation and End of Rate Hikes Expected in 2023

모건 스탠리, 내년엔 글로벌 성장 둔화, 인플레이 약화, 금리 인상 중단 전망

- 모건 스탠리는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도 약세를 보이며 금리 인상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은행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은 2.2%로 예상했다. 미국은 간신히 경기 침체를 피할 것 같은 반면에 영국과 유로존은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경제는 긴축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유로존 경제는 에너지 가격 쇼크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 모건 스탠리는 또한 중국의 경우 내년 봄에 코비드 제한명령이 느슨해짐에 따라 경제가 내년엔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경제 회복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Market Watch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All eyes on the consumer ahead of Black Friday and the holidays

소매업계,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소비자 동향에 주목

-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 주택 시장 둔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2주 앞두고 소비자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 지수(credit card rates)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큰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연방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미 소비자 지출은 1.4% 증가했다. 나쁘지 않은 성장세이지만 1,2분기보다는 둔화된 모습이다.
- 한편 소매업자들은 그동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며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견고한 노동 시장과 임금 상승으로 가격이 올랐음에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2023년까지 소매업체들의 고전을 예상했다.
- 주택 시장 역시 지난 달 주택 판매량이 4백 40만 채로 올해 9월 4백 70만 채, 전년 동기 6백 30만 채보다 줄어들며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WSJ: Labor Market Mystery: Where Are the Older Gen Z Workers? 미 20대 초 'Z세대 근로자' 왜 사라졌나 : 노동 시장 미스터리

- 미국의 15세 이상 노동력 참여율은 2019년 평균 63.1%에서 2021년 61.7%로 낮아졌다가 올해 10월 62.2%로 회복됐다. 그러나 20~24세의 경우 2019년 평균 72.1%였던 참여율이 올해 10월 70.8%에 그쳤다.
- 이는 현재 노동력 규모를 2019년 수준과 비교할 때 20대 초반 Z세대의 노동자가 약 50만명 부족한 셈이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수요가 높음에도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팬데믹 이후 대학원 진학 증가, 육아,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꼽았다.

WSJ 기사

Bloomberg: How Apple Stores Became Just Another Retail Job 애플 스토어, 소매업장으로 전략한 이유

- 지난 20년간 수준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켜왔던 애플 스토어는 인력 부족과 판매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애플이 경쟁 업체들의 더 싸고 뛰어난 기기 출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소비자를 붙잡은 데에는 애플이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애플 스토어의 직원들은 팀 쿡의 취임 이후 판매 전략이 바뀌며 시간 당 고객 할당량이 늘어나고 교대 근무 인원이 줄어들어 판매에 대한 압박이 늘었다고 말하며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Bloomberg기사

CNBC: Ford vs. GM: Same industry, two increasingly different companies **Ford vs. GM: 같은 산업 두 라이벌 회사의 다른 전략**

- 오랜 기간 미국의 최대 규모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라이벌로 경쟁을 지속해 왔던 Ford와 GM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로의 전환기를 맞아 서로 다른 투자 방향을 보이면서 두 회사의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GM은 2035년까지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면 전환에 나서며 신형 배터리, 자율주행 자동차 및 로봇택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겠다고 밝혔다.
- 반면 Ford는 향후에 수익성이 별로 없는 Argo AI 자율주행자동차 사업 부문을 철수하고 automaker's hands-free BlueCruise 고속도로 주행 시스템 등의 운전자 보조 기술을 포함한 단기 기술과 EV 생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 한편 GM은 최근 몇 년 동안 EV, 자율주행 자동차로의 초기 전환과 더 나은 재정 상태에 힘입어 Ford 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CNBC 기사

NYT: Electric Vehicles Start to Enter the Car-Buying Mainstream **EV, 자동차 시장 주류에 진입 시작했다**

- 전기차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올해 들어 9월까지 판매량이 2021년 동기 대비 70% 급증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트럭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15% 줄었다.
- 물론 아직까지 내연기관 자동차가 신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은 2021년 2.9%에서 올해 9월까지 5.6%로 약 두 배 늘었다.
- 다수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 뿐만이 아니라 휘발유 가격을 절약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비용 절감이 EV의 이점이라고 밝혔다. 전기차가 비슷한 등급의 휘발유 차량보다 수 천 달러 더 비싸지만 잠재적으로는 절약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 하지만 EV업계에 아직 남아있는 장거리 주행 시 충전 시간 소요 및 인프라 문제, 컴퓨터 칩과 배터리 및 부품 생산 문제 등의 해결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인플레이 정점론은 시기상조"...Fed 매파 발언에 달려 반등

**월러 이사 "금리인상, 갈 길 멀어
강력한 고용, 임금 끌어올릴 수도
12월·내년 1월 중 한번은 빅스텝"**

미국 중앙은행(Fed) 내에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7%)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임금 상승 등 물가 자극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는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UBS콘퍼런스에서 10월 CPI 상승률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은 좋지만 이 역시 큰 폭의 오름세"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발표된 10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7.9%)와 전달 상승률(8.2%)을 밑돌았지만, 추세적인 둔화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월러 이사는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갈 길 이 멀다"고 지적했다. 미국 고용시장의 강력한 구인 수요가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어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